



##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가림막 뒤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며

어느 한 학교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각각의 질문마다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교실 가운데에 그어져 있는 선으로 나와 섭니다. “유명 가수 누구누구의 앨범이 있는 사람?” “자신이 계획성 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생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분위기는 점점 숙연해집니다. “감옥에 있어 보았던 사람?” “갱단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 “폭력으로 인해 친구를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자신과 함께 교실 가운데 선으로 나온 다른 친구의 얼굴을 보며 학생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매일 나와 싸우던 저 친구가 사실은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프리 라이터스 다이어리’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미국 사회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소위 말해 ‘문제아’ 취급을 받던 학생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은 실화 영화입니다. 학생들이 갱단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라틴계·아시아계·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학생들은 같은 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심을 갖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조차 학교의 위상이 떨어진다며 외면하고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루웰이라는 ‘초짜’ 선생님이 새로운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고 힘겹게 수업을 이끌어가다가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학대, 마약, 차별과 같은 문제들이 그 아이들을 엮나가게 했을 뿐, 사실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여, 그루웰 선생님은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시도하고,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이 당당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다수 학생은 명문대에 진학하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변화되는 학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의 끈질긴 노력이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교정시설의 미사가 재개된 요즘 이 영화가 다시 생각납니다. 구치소에서 미사를 봉헌하기 전, 잠깐 주어지는 고해성사를 통해 수용자 형제자매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성함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가림막 틈새 사이로 형제자매님들의 모습과 수감번호가 보일 뿐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눈물을 펄펄 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은 은총이라는 말처럼, 하느님께서 이 시간 그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 그의 아픔을 알고 잡아주었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미사를 마치고 담장 밖으로 나옵니다.

6월 예수성심성월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던 병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던 약자들, 가난한 이들,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까지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던 분.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요한 13,1) 분. 인간 됨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스승이요 어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던 곳은 화려한 성전도 힘 있는 권력자들도 아닌, 맘 냄새 나는 제자들의 발이었고 외면받던 나병환자의 피부였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담장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5월 3일(월) 명동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아픔이 하나도 없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울퉁불퉁 거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주변의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품고 안아주는 쓰라린 길이다.”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구부러진 길, 울퉁불퉁 거칠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걸어가면 부활에 이르는 길이며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매월 둘째 주 월요일 길음동성당, 셋째 주 월요일 광장동성당, 넷째 주 월요일 양천성당에서 오전 10시 30분 교정사목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각 교정시설 미사 재개



5월에는 성인 교정시설(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의 집회가 재개되어 거룩한 미사를 신부님과 함께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음에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미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인성교육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교정시설 인성교육이 대면으로 서서히 전환되어, 4월 26일(화), 28일(목), 5월 2일(월)~3일(화)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0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김향미 강사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성향 진단과 행복한 자기 경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었고, 편견 없이 대해주심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좀 더 옳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힘을 키워내길 바랍니다.



## 서울남부구치소 여사를 다녀오며

김연유 율리아\_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봉사자

급속한 변화와 불균형 안에서 지탱하여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영치금을 얼마로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도 접하지도 못하였던 단어. 두꺼운 벽과 빗살 같은 창살로 가득한 내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발견하며 제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이 교차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막연한 마음으로 팀의 움직임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사유 물품은 보관소에 맡기고 교도관님의 인솔하에 문이 열리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규모 있게 잘 갖추어진 교정시설 내부에는 청결과 정리 정돈의 모습에 엄격한 규율이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어디인지 모르게 들어간 곳은 약 40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 우리는 준비해 온 물건들을 뒤쪽에 옮겨 놓았고 잠시 후에 들어오는 여자 수감자들을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한 여인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푸르른 색깔의 옷이 그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은 듯한 느낌에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쉽고 아파져 왔습니다.

무슨 연유로 아리따운 이 여인들이 이곳에서 지내야만 하게 되었을까? 자문해보았지만, 외적으로 사랑스러웠던 모습 외에는 아무 표현도 할 수가 없었고 잠시 후, 저는 그녀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한마디씩 건넬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교정시설에 갇혀 처벌받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법치주의를 따라야 하는 현실, 오로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잠시나마 떠올려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을 더 일찍 배우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라는 아쉬움, 하느님의 카리타스(사랑, 애덕, 자선 등)를 배우고 베푸는 것, 우선순위를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쓰러진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신앙의 정당함에 있어서 착한 사마리아 여인의 영성이 하느님에게서 나온 인간의 존엄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의 존엄함이 나옴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기쁨과 희망 힘없고 약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 카리타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떠돌아다니는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느님과 이 여인들을 연결과 결합을 할 수가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여인들도 하느님을 먼저 만났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엇갈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이분들을 하느님과 연결해 사회의 참된 인간화와 참된 사회화 모습을 그리며 변화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복음화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질투 속에 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죄값이 얼마나 가야 하는 것일까?

십자가의길을 걷지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을 그려봅니다. 언젠가 아주 가까운 먼 훗날 이들에게도 "십자가의길을 걷지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 아 칸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아칸은 ‘곤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리코 성읍 주변을 매일 한 번씩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날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예리코 성벽을 무너트리고, 예리코를 손쉽게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주변 아이 성읍으로 향합니다. 예리코를 이긴 기세를 몰아쳐서 쉽게 아이를 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건만, 패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성읍과 성읍 안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여호 6,17)이니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긴 사람을 제비로 뽑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씨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씨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완전 봉헌물을 가지고 있다가 제비로 뽑히는 자는, 그에게 딸린 모든 이와 더불어 불에 태워야 한다. 그가 주님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 7,14-15)

패전으로 ‘곤란’을 겪은 이스라엘이 그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제비를 뽑고 그렇게 유다 지파, 제라 씨족, 잡디 집안의 아칸이 뽑혔다는 이야기(여호 7,16-18)는 너무나 극적이며, 신화적 요소가 가득합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점령한 성읍 주민과 모든 것, 가축까지 칼로 전멸시키고 노획물을 불살라서 하느님께 바치라(신명13,16-18)고 완전 봉헌물에 대해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순수성과 야훼 신앙을 지키려는 것에서 나왔을 것입니다(신명 7장 참조). 하지만 여자와 아이들, 가축과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신명 20,14)는 등 규정들 사이에서도 일치되지 않고 또한 예리코 성읍을 진격하면서도 여호수아는 완전 봉헌물 중에서 은과 금, 청동 기물과 철 기물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고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6,19). 또한 전리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곤란을 겪었으면, 그다음 전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또한 엄하게 금하고 이를 어기면 똑같이 처벌하여야 하는데, 그다음 아이성읍의 전투에서는 전리품과 가축을 제 뭍으로 가지게 합니다(여호 8,2,27).

어쩌면 전쟁 후 전리품들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장정 사이에 암묵적으로 관행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힌 아칸이 겔옷과 은과 금덩어리를 숨겨 놓은 것이 밝혀진 것처럼, 다른 지파의 다른 씨족, 다른 이가 뽑혔을지라도 아마도 숨겨 놓은 전리품이 드러났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배경을 둔다면, 제비를 뽑는 와중 아칸이 스스로 나가 자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여호 7,25) 아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던지는 돌을 맞아 죽습니다. 아칸이 재물에 욕심을 내어서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리코 성읍의 전리품 차지, 아이 성읍 전투의 패배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이 전투의 패배는 그 전투의 책임자와 정탐자, 전투에 참석한 병사의 책임입니다. 전리품 차지가 문제가 되었으면, 예리코 성읍 전리품을 몰래 차지한 모든 장정을 찾아내어 그 전리품을 몰수해서 원래대로 주님의 창고에 넣든지, 아니면 모두 똑같이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한 명에게 책임을 몰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비에 뽑힌 한 명의 잘못이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세 그리고 근대 초기에까지 유럽과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에서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재판들이 있었으며, 현대에도 히틀러의 ‘우생학’, 미국의 ‘KKK’, 소련과 아프리카의 ‘인종학살’ 등 집단이 절대적 신조를 내세워서 개인에게 무차별적 탄압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 이주민, 무슬림, 유색인, 성 소수자에게 혐오를 생산하고 있고, 개인 영상물 혹은 인터넷 댓글들을 통하여 집단을 이루어 개인에게 몰려가 근거 없이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아칸은 전리품을 소유하기라도 했지, 마녀사냥을 당한 많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조차 미안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론몰이의 대상이 된 범죄자의 경우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고 또 다른 사건의 원인의 책임으로 물리기까지 합니다. 범죄자는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여론을 돌리기 위한 희생자로 삼아서는 안 되며, 형량 역시 여론에 의한 엄벌주의, 강성주의, 형벌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실패 가능성도 염두 한 창업 준비 (2)

염OO / 2022년 창업대출자

〈이전 호에 이어서〉

### 8. 앞으로 영업이 어떻게 되어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떤 것일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시죠?

예전 창업과 지금의 창업은 코로나 발병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창업자가 폐업하게 되었고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팬데믹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업체가 살아남았던 거였고 소수 업체만이 반사이익을 받았습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여러 품목 중에 헬스용품을 취급하게 되었는데 팬데믹 영향으로 홈트(집에서 하는 운동) 증가로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불리 아무런 준비 없이 하기보다는 최소한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창업 실패 가능성 염두도 해놓고 자금을 운용하셔야지 사업 초기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 9. 현재 업종이나 예비창업자에게 충고해준다면?

저는 수입해서 도소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든 구매대행이든 다 같은 업종입니다. 어떤 좋은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유지하지 못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꼭 나만의 경쟁력과 노하우로 운영하세요. 그리고 가격으로 승부 보려고 하면 결국 가격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 생기면 가격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꼭 자기만의 판매 전략을 세우고 그게 없다면 만들고 나서 창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느니 못하니까요. 꼭 준비되고 준비에 맞는 예산이 되었을 때 그때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창업을 시작했을 때 다짐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못 팔 제품은 없다.”입니다. 사실상 팔하든 판매는 똑같습니다. 다만 제조하냐 그 차이뿐입니다. 제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면 독점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지만, 제조 또한 만만치 않은 것

이니까요. 제 말의 요점은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제품 저 제품 해보셔서 하나 걸리면 좋은 게 아니라 한 품목의 판매라도 성공하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한쪽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이 다른 공부를 해도 잘하는 것처럼 판매도 똑같습니다. 품목만 다를 뿐 파는 사람은 같으니까요! 단 판매 전략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창업의 성공 방법? 이런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 10.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있다면?

저의 각오는 정도를 알고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소리는 과도하게 준비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면서 꼼꼼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 11.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만 사항과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창업 지원제도 사실 지원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나쁠 게 없죠. 일단 서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서류가 확인되고 진행 인터뷰를 빠르게 진행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본인이 사업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지원에 문을 두드려 보는데 맞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 없이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제도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2.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에게 창업 지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출소자들이 희망에 찰 수 있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움 주는 곳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움으로써 출소자들이 다시 나중에 사회에 어떤 식으로도 환원할 수 있는 사회일원으로 되는 것이 궁극적인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기쁨과 희망을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몬 신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와 함께 어릴 적에 대구에 있는 성당에서 모자이크된 창에 색색 빛으로 성당 안을 비추던 밝고 아름다운 빛에 이끌려서 일요일마다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성당 뒤편 성모마리아 상 근처를 철없이 뛰어다니며 놀던 때가 지금도 어제처럼 느껴집니다.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라서 어릴 때는 일요일에 항상 성당에 나간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고부터 아버지도 어머니도 성당에 나가지 않으시고 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성당을 꼭 다니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의 4월 10일 복음 말씀을 읽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이기적인 삶들과 방관만 하던 일들,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하며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는 못해도 내 삶에 용서가 있었는지, 남은 외면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보니 역시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출소 후 성당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제가 너무나 무심했던 제 가족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란 소설 내용이 궁금해서 사보려고요.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시몬 신부님 항상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베드로 드림

\*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베드로 형제님이  
송경섭 신부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2022년 7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 7월 4일(월)
- ▶ 7월 11일(월)
- ▶ 7월 18일(월)
- ▶ 7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 / 중서울 길음동성당
- / 동서울 광장동성당
-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 ● 행사 알림

- 6월 11일(토)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6월 1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길음동성당 / 10:30
- 6월 20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광장동성당 / 10:30
- 6월 2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양천성당 / 10:30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4/15~5/12)

2022년 4월~5월에는 조정옥 마라이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정순 데레사님께서는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